

함평군 나산면, 겨울빛축제 대비 마을곳곳 '겨울 빛에 물들다'

지역 사회단체 자발적 협력... 다채로운 야간 경관조명 연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나산면이 지역 사회단체와 손을 맞잡고 '2025 함평 겨울빛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나산면이 오는 28일 개최하는 '함평겨울빛축제'를 앞두고 나산면 이장단·변형회·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함께 나산면 일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따뜻한 겨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25 함평겨울빛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엑스포공원은 이이남 작가의 대형 미디어아트, 빛의 회전목마, 빛의 미로 등 빛과 예술을 결합한 야간 경관 연출로 '빛

의 테마파크'로 변신하며,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겨울 간식거리로 방문객에게 따뜻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첫 개최에도 8만여 명이 다녀가며 사계절 축제 도시 함평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군은 올해 지역 전역을 밝히는 연출과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깊이진 겨울빛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나산면 역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면 소재지 거리에 다양한 조명 장치를 설치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겨울 정취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 현수막 및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나산면 이장단·변형회·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종교단



체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축제 준비에 힘을 보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나산면은 축제 전후로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주민과 관광객에게 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제공할 방침이다.

정식 나산면장은 "여러 단체에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마을 전체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하다"며 "방문객 모두가 포근한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나주시 학생기자단, 라디오 진행부터 뉴스 앵커까지 체험 호남대 통합뉴스센터 미디어 제작 현장 탐방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제1기 학생기자단(어린이 부문)이 지난 21일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주간 한선 교수)를 방문해 방송 미디어 제작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 탐방은 학생기자단의 미디어 소양 향상과 실무 감각을 높이기 위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센터 방송시설 견학, 보이는 라디오 실습, 뉴스 앵커 체험, 질의응답 등 실제 방송 제작 흐름을 따라가는 체험 중심 일정을 소화했다.

2009년 설립된 호남대 통합뉴스센터는 전국 대학 최초의 미디어 실습 교육 공간으로 방송 스튜디오, 주조성실, 보이는 라디오실 등 실제 방송 환경을 갖춘 미디어 전문 교육시설이다. 학생기자단은 방송 스튜디오와 주조성실을 살펴본 뒤 마이크 앞에 앉아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보이는 라디오 실습은 호남대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안현수 교수가 진행자로 참여해 학생들과 인터뷰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진 뉴스 앵커 체험에서는 프롬프터를 활용해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주제로 한 뉴스를 전하며 실제 방송 제작 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방송 장비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니 보이는 라디오 실습이 가장 흥미로웠고 기자나 아나운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학생기자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청소년의 시청 참여 기회와 미디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겨울에는 완도 유자 먹고 면역 UP! 올해 2천 톤 수확

해양성 기후와 해풍 맞고 자라 과피 두껍고 품질 우수

완도군에서 11월 중순부터 유자 수확이 시작됐다.

완도군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해풍 덕분에 국내 최고 품질의 유자 주산지로 꼽히며, 완도 유자는 과피가 두꺼워 차, 정, 잼, 요리,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올해 이상 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잦았지만 군에서 방풍, 스마트 관수 시설 지원 등 체계적인 재배 관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올해 완도 유자는 약 250ha 면적에서 2천 톤이 수확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도는 유자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면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한성 품종 및 스마트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C 덩어리'라 불리는 유자에는 비타민C가 일반 감귤류보다 많고,



면역 세포 기능 활성화, 활성 산소 제거, 피로 해소,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섬진강기차마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11월 24일부터 유료 관광객 대상 3천 원 커피 쿠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상권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그램인 '섬진강기차마을 로컬 한잔'을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을 맞아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유료 입장객에게 지역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지역 카페에는 새로운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앞서 곡성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상권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20개 관내 카페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참여 카페는 곡성을 중심지 및 관광지 주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관광객이 기차마을을 관람 이후 관내 여러 지역

을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쿠폰은 11월 24일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유료 입장객을 대상으로 현장 배부되며 관광객은 참여 카페 중 원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업소 정보는 쿠폰 뒷면 및 곡성군 공식 SNS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기차마을의 매력적인 풍경을 즐긴 뒤 로컬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잔까지 이어지는 여행 경험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이벤트가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카페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특별 운영 전망대 특별 운영으로 안전 관리 강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7일 0시 54분부터 01시 14분 사이 고희나도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됨에 따라, 최적 관람지인 고희우주발사전망대를 특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발사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첫 민간 발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관람하려는 방문객이 전국에서 전망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망대에서는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0시까지 무료 순차 입장이 진행된다.

입장객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을 실시하며, 내부 입장객이 퇴장하면 대기 순서에 따라 추가 입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우주발사전망대 내부 입장이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핫팩 1,000개를 무료로 배부해 추위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며, 방문객들이 발사 순간을 안전하게 즐기고 발사 성공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발사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 주민 의견 듣고 내년도 지적재조사 추진

장성 기산지구 등 12개 지구 대상... 내달 2일부터 사전 주민설명회

장성군이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연다.

개최 지역은 내년도 지적재조사가 예정된 장성 기산지구 등 12개 지구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 및 장소는 해당 지구별로 별도 안내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종이 도면에 작성한 기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조사·재작성해 바로잡는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편리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해당 지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알고도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대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할-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만드는 기어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진짜.**
 풍만한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기어스레.**
 미래의 현재가 **기어스레.**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말이야.**
 언더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기어스레.**
 좋은 거라면 **기어스레.**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